

2025학년도 3월 대비 Unkicetic 모의고사 해설지

빠른 정답	생활과 윤리 (2~5p)
-------	---------------

1	②	2	②	3	④	4	③	5	④
6	③	7	①	8	④	9	②	10	③
11	③	12	①	13	①	14	①	15	①
16	④	17	④	18	⑤	19	⑤	20	②

빠른 정답	정치와 법 (9~11p)
-------	---------------

1	⑤	2	④	3	③	4	④	5	⑤
6	④	7	①	8	③	9	②	10	③
11	③	12	①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②	18	④	19	④	20	③

빠른 정답	윤리와 사상 (6~8p)
-------	---------------

1	③	2	①	3	④	4	②	5	④
6	③	7	③	8	⑤	9	②	10	③
11	①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④	17	④	18	③	19	②	20	②

빠른 정답	사회·문화 (12~15p)
-------	----------------

1	④	2	⑤	3	⑤	4	④	5	③
6	②	7	③	8	②	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①	19	③	20	①

1	②	2	②	3	④	4	③	5	④
6	③	7	①	8	④	9	②	10	③
11	③	12	①	13	①	14	①	15	①
16	④	17	④	18	⑤	19	⑤	20	②

총 평

3월에 배포하는 화차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평소보다 쉽게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상 등급컷은 수능 표본 기준으로 47/44/41입니다. 등급을 신경쓰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짚어보는 용도로 사용해주세요.)

해 설

01 윤리학의 분류 ②

제시문의 '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나'가 비판하는 '어떤 사람'은 메타 윤리학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정답 해설]

② 실천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에게 '도덕적 언어를 분석'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할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메타 윤리학은 도덕 명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중히 여긴다.
- ③ 도덕 현상을 서술하기 위한 경험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이다.
- ④ 삶의 자침이 되는 도덕원리의 '체계적인 정립'은 메타 윤리학이 아닌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강조할 내용이다.
- ⑤ 도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기술 윤리학에서 강조할 내용이다.

02 동양 윤리 ②

갑은 석가모니. 을은 장자이다.

[정답 해설]

② 석가모니에 따르면 연기법을 깨달지 못한다면 만물의 무상함을 모르기에 영원불변한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애욕은 무명의 원인 중 하나이다.
- ③ 장자에 따르면 삶을 기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아야 한다.
- ④ 장자에 따르면 시비, 선악, 장단, 미추 등의 모든 인위적 구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순자를 제외하고 본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사상가는 없다.

03 과학 기술 윤리 ④

[정답 해설]

④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뉴미디어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보 수용을 비판적으로 해야 하고, 정보 자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뉴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사회 구성원이 본인들의 역량을 재고(再考)하여 본인들의 역량을 파악한 뒤, 정보 자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04 서양 윤리 ③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정답 해설]

- ㉠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 행위하라고 주장한다.
- ㉡ 칸트의 보편화 정식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 ㉢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 ㉣ 해당 선지는 가언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의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일 뿐이다.

05 생명 윤리 ④

갑, 을 모두 유전병 치료를 위한 과학적 연구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유전병 치료를 위한 생식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정답 해설]

④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삶과 죽음의 윤리 ③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정답 해설]

③ 플라톤에 따르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며, 죽음을 통해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삶의 부재는 악(惡)이 아니다.
- ②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플라톤은 사물에 대한 순수한 인식은 죽음 이후 영혼이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⑤ 에피쿠로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

07 과학 기술 윤리 ①

갑은 요나스, 을은 베이컨이다.

[정답 해설]

- ① 베이컨은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으로, 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반면 요나스는 과학 기술로 인한 이익보다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②, ③, ④, ⑤ 베이컨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08 다문화 윤리 ④

제시문의 담당자는 귀국이 도입했던 문화 정책이 이민자들의 문화를 원주민의 편입하고자 한 문화 정책이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문화를 원주민들의 문화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한다. 이는 용광로 이론을 비판하고 샬러드 볼 이론을 시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답 해설]

- ④ 서로 다른 문화를 대등하게 존중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샬러드 볼 이론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문화들의 위계를 인정하며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 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이론은 국수대접 이론이다.
- ②, ③ 이민자들의 문화 정체성을 원주민의 문화로 동화시키는 것은 용광로 이론으로 샬러드 볼 이론이 아니다.
- ⑤ 이민자들의 문화들을 중심으로 문화를 구성해야한다는 입장은 샬러드 볼 이론이 아니다.

09 분배 정의 ②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정답 해설]

- ① 롤스에 따르면 타고난 자질은 임의로 받은 것이기에, 응분의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노직은 복지를 위한 정책은 소유권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모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③ 롤스에 따르면 시민들은 기본적 자유를 경제적 가치보다 선호한다.
- ④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직에 따르면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이라도 취득, 이전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완화될 필요는 없다.

10 환경 윤리 ③

갑은 싱어, 을은 레오폴드, 병은 테일러이다.

[정답 해설]

- ③ 싱어와 테일러만의 입장이다. 싱어와 테일러는 모두 개체론자로서 자연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반면

레오폴드는 전일론자로서 자연 자체를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생명 공동체로 보았다.

- ②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모두 인간이 아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사유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이므로 세 사상이 모두 사유 능력이 없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개체가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에 따르면 종 차별주의는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싱어는 투표권을 인간에게만 주는 등 차등 대우를 인정한다.
- ④ 싱어가 동의할 선지이다. 싱어에 따르면 쾌감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이들을 위해 인간의 육식, 무분별한 자연 파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 예술 ③

갑은 도덕주의자 플라톤, 을은 칸트이다.

[정답 해설]

- ③ 칸트에 따르면 미적 판단은 미에 대해 판정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다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판정하기를 요구하는 판정이기에 보편적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 ① 도덕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 ②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가는 작품 속에 선의 이데아를 표현해야 한다. 선의 이데아는 현실이 아닌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 ④ 칸트에 따르면 도덕 판단과 마찬가지로 미적 체험도 감상자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 ⑤ 상식이다.

12 사회 계약론 ①

갑은 흄스, 을은 로크이다.

[정답 해설]

- ① 흄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 계약에 참여한다.
- ② 흄스에 따르면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으며, 로크에 따르면 생명,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④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개인이 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는 것이다.
- ⑤ 로크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13 평화 윤리 ①

갑은 칸트, 을은 갈통이다.

[정답 해설]

- ① 칸트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매우 힘들 뿐이다.

- ㉔ 갈등은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폭력을 통해서 평화는 이룰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㉓ 갈등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차별도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
- ㉕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방어 전쟁을 인정한다.

14 시민 불복종 ①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정답 해설]

- ㉓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계약론적 관점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에 기초해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계약론적 관점에 해당된다.
- ㉔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성과 성공 가능성을 모두 요구한다.

[오답 해설]

- ㉔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자들의 처벌 감수는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한다.
- ㉕ 롤스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제1 원칙의 위반이므로 이를 알리기 위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 있다.

15 소비 윤리 ①

제시문의 사상은 배블런이다.

[정답 해설]

- ㉓ 배블런의 소비 윤리에서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사회 구조의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비교, 허영심이 주 원인이 되어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가까워 지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 ㉕ 유한계급은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과시 소비를 한다.

[오답 해설]

- ㉓ 과시 소비 성향은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함으로써 증가한다.
- ㉔ 과시 소비 성향은 모든 계급에서 나타난다.

16 직업 윤리 ④

제시문의 사상은 마르크스이다.

[정답 해설]

- ㉔ 마르크스에 따르면 계급 투쟁의 역사는 고대 노예제부터 시작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⑤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이니 암기하자.

17 사랑과 성 윤리 ④

제시문의 강연자는 에리히 프롬이다.

[정답 해설]

- ㉔ 프롬에게 진정한 사랑은 '준다는 요소'.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의 요소로 이뤄져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오답 해설]

- ① 프롬은 사랑을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라고 보았다. 프롬에 따르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려 한다.
- ② 프롬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한 헌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관심과 배려, 책임감, 존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선천적이 아닌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후천적인 노력이다.
- ⑤ 프롬은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외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8 해외 원조 ⑤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정답 해설]

- ㉓ 싱어에 따르면 기아의 원인은 전 세계의 인구 과잉에 있지 않다. 세계의 총 식량 생산량은 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나, 기아의 원인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다.
- ㉔ 롤스는 원조의 의무에 따르면 어떠한 세금도 없다고 보았다.
- ㉕ 싱어와 롤스 모두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의 의무는 보편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㉔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의무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과 무관하다. 롤스에 따르면 어떤 나라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수준에 달려 있다.

19 형벌론 ⑤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정답 해설]

- ㉕ 루소는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나, 칸트는 사형을 통해 살인자의 인격성을 존중해야한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칸트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 원수에 대한 암살 시도는 해당 나라에 대한 반역으로, 미수로 그치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 ② 칸트가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③ 베카리아가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루소와 베카리아는 모두 사형제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권 양도 여부로 판단한다.
- ④ 루소가 간과하는 비판이 아니다. 루소에 따르면 형벌은 일반의지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20 통일 ②

(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나)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정답 해설]

X : 통일 이후 국제 정서의 흐름을 주목하는 정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국제 정서는 감성적인 것으로 통일 여부를 감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의 입장보다 통일 여부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의 입장이 더 큰 것이다.

Y :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을 고려하는 정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은 감성적인 것으로 통일 여부를 감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의 입장보다 통일 여부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의 입장이 더 큰 것이다.

Z : 통일 여부 결정에서의 유용성 계산을 걱정하는 정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유용성 계산은 이성적인 것으로 통일 여부를 감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의 입장보다 통일 여부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의 입장이 더 작은 것이다.

1	③	2	①	3	④	4	②	5	④
6	③	7	③	8	⑤	9	②	10	③
11	①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④	17	④	18	③	19	②	20	②

총 평

3월에 배포하는 화차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평소보다 쉽게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상 등급컷은 수능 표본 기준으로 47/44/41입니다. 등급을 신경쓰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짚어보는 용도로 사용해주세요.)

해 설

01 도가 사상 ③

제시문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정답 해설]

㉓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고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장자의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입장이다. 도(道)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에 우열은 없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본성을 교화하라고 주장하는 동양 사상가는 순자뿐이다.
- ② 석가모니의 입장이다.
- ④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사단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가는 맹자이다.
- ⑤ 석가모니의 입장이다.

02 고대 서양 사상 ①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정답 해설]

- ㉑ 소크라테스는 쾌락을 주지 못하더라도 덕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덕이 쾌락을 주는 한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 ㉔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

[오답 해설]

- ㉒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경험에 관련된 추론 속에 얹어 내재한다.
- ㉕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참된 쾌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만 충족해야 한다.

03 아퀴나스와 스피노자 ④

갑은 아퀴나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정답 해설]

- ㉔ 스피노자는 목적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스토아 학파와 구별된다.

스피노자의 신은 계획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다.

[오답 해설]

- ㉑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최종 목적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 ㉒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성향,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등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의무가 된다.
- ㉓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유의지와 자유는 다른 개념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으나,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통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 ㉕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나, 신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04 고대 유교 사상 ②

(가)는 유교의 공자, (나)는 묵자이다.

[정답 해설]

- ㉑ 맹자가 주장한 '구방심'에 대한 설명이다.
- ㉔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이다. 선천적 도덕 인식 능력을 맹자는 '양지', 순자는 '지력'라고 부른다.

[오답 해설]

- ㉒ 순자에 따르면 예는 귀천과 차등의 기준점이고, 사회의 혼란은 예가 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에 일어난다.
- ㉕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수명은 예에 달려 있다.

05 근대 서양 사상 ④

갑은 흄, 을은 데카르트이다.

[정답 해설]

- ㉔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유를 멈추는 순간 존재의 확실성은 사라진다.

[오답 해설]

- ㉑ 흄에 따르면 도덕적 선악의 감정은 판단자의 개별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판단된다.
- ㉒ 흄에 따르면 덕의 식별은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상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다.
- ㉓ 데카르트에 따르면 1+1=2와 같은 수학적 공리도 방법적 회의 과정에서 의심의 대상이 된다.
- ㉕ 흄에 따르면 인간은 인과관계를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06 조선 성리학 ③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정답 해설]

- ㉓ 이이에게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가려내 말한 것이기에 칠정 가운데 인욕이 섞이지 않은 순선무악한 감정이다.

[오답 해설]

- ① 이통기국론은 이이만의 입장이다.
- ② 이황에 따르면 기도 작용성을 가진다.
- ④ 이이에 따르면 칠정중에 선한 것이 바로 사단이다.
- ⑤ 성리학에서 이는 순선무악하다.

07 정약용 ③

제시문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답 해설]

- ㉠ 정약용은 사단의 단을 성리학에서 해석한 것과 달리 실마리가 아니라 시작으로 해석했다.
- ㉡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을 생활 속에서 확충함으로써 사덕을 형성해야 한다.

[오답 해설]

- ㉢ 정약용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
- ㉣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인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이다.

08 공리주의 ⑤

갑은 벤담, 을은 밀 이론의 입장이다.

[정답 해설]

- ㉠ 밀은 인간이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보았다. 반면에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벤담에 따르면 쾌락 계산 기준 7가지 중 '순수성'이 있다.
- ㉢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행위 공리주의의 공통점이다.
- ㉣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벤담에 따르면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경건함의 가치도 계산할 수 있다.
- ㉤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는 입법의 원리로 작용해야 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이다.

09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②

갑은 자유주의 사상가. 을은 공화주의 사상가이다.

[정답 해설]

- ㉠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별리는 소극적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보았다.
- ㉡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정치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오답 해설]

- ㉢ 별리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당연히 국가와 법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 개인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 경제 사상 ③

갑은 케인즈, 을은 하이에크, 병은 민주 사회주의자이다.

[정답 해설]

- ㉢ 민주 사회주의는 정부의 계획 경제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 불황과 실업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개입만을 주장하고 계획 경제를 비판하였다.

[오답 해설]

- ㉠ 하이에크가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 ㉡ 케인즈와 민주사회주의자가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 ㉣ 케인즈가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케인즈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도입을 주장한다.
- ㉤ 케인즈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11 근대 서양 사상 ①

제시된 사상가는 칸트이다.

[정답 해설]

- ㉠ 칸트에 따르면 신은 인간과 달리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 ㉡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가 행위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오답 해설]

- ㉢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도덕 법칙에 위배될 가능성은 없다.
- ㉣ 당연히 자연적 경향성이 인간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

12 대승 불교 ④

갑은 유식 사상이 세친, 을은 중관 사상이 용수이다.

[정답 해설]

- ㉣ 소승 불교의 입장이다. 용수는 일체의 모든 법이 자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 유식 사상의 기본 입장이다.
- ㉡ 세친에 따르면 요가 수행을 통해 식을 변화시켜 지를 얻어야 한다.
- ㉢ 중관 사상의 기본 입장이다.
- ㉤ 대승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13 사회 계약론 ⑤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정답 해설]

- ㉤ 이권 분립을 주장한 로크뿐만 아니라, 루소도 입법권이 행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 로크에 따르면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입법부를 교체할 수 있다.
- ㉡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타인에 대한 사적인 보복이

가능하다.

- ③ 루소에 따르면 정부 형태가 어떠한 간에 법이 지배하는 국가는 모두 공화국이다. 루소는 절대 군주를 부정한 것이지만, 군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 ④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도 선취권은 존재하고, 이것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재산권으로 인정받는다.

14 고대 서양 사상 ⑤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정답 해설]

-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유덕한 행동에 대한 앎 없이는 덕을 실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자는 현실 세계에서도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
- ② 플라톤에 따르면 최악의 정치 체제는 민주정이 아니라 참주정이다.
- ③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모두 선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선은 사물도 가질 수 있는 가치이다.

15 스토아 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 ②

갑은 에픽테토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정답 해설]

- ② 스토아 학파에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스토아 학파의 기본 입장이다.
- ③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초의 인간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 ④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선한 것은 신의 창조물이다.
- ⑤ 스토아 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입장이다. 사실 서양 사상가라면 무신론자인 사르트르라고 해도 누구나 동의할 말이다.

16 불교 ④

갑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정답 해설]

- ④ 선종 사상가인 지눌에 따르면 선 수행을 위주로 하되, 교 수행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 ① 혜능은 돈오돈수를 주장했다. 돈오를 통해 불성을 깨달은 이후의 점수를 주장하지 않았다.
- ② 혜능에 따르면 불성은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다.
- ③ 지눌에 따르면 돈오 이후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
- ⑤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17 실존주의 ④

갑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정답 해설]

- ④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의 인간도 신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사르트르는 무신론을 주장했다.
- ② 사르트르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등 모든 사회적 삶을 거부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사르트르는 사회 참여를 통한 책임을 주장했다.
- ③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보편자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⑤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로 보는 것은 실존주의의 공통점이다.

18 성리학과 양명학 ③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정답 해설]

- ㉠ 왕수인에 따르면 사단은 성이 겉으로 들어난 덕이다.
- ㉡ 왕수인에 따르면 이치를 궁구했다는 것은 이치를 실천한 것과 같다.

[오답 해설]

- ㉠ 왕수인의 입장이다.
- ㉡ 주희는 악행의 원인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보았다.

19 근대 한국 사상 ②

갑은 동학의 최제우, 을은 위정척사파의 최익현이다.

[정답 해설]

- ② 동학은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한다. 반면 위정척사파는 성리학의 신분제적 전통을 고수한다.

[오답 해설]

- ① 위정척사파가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 ③ 동학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 ④ 위정척사파가 제기할 비판이 아니다.
- ⑤ 동학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20 민주주의 ②

갑은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 롤스, 을은 엘리트 민주주의 사상가 슈페터이다.

[정답 해설]

- ② 롤스의 기본 입장이다.

[오답 해설]

- ① 롤스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성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있다.
- ③ 슈페터에 따르면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④ 슈페터에 따르면 시민이 정치인을 수시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슈페터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슈페터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정치인에 의한 지배이다.

바른 정답	정치와 법
-------	-------

1	⑤	2	④	3	③	4	④	5	⑤
6	④	7	①	8	③	9	②	10	③
11	③	12	①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②	18	④	19	④	20	③

총 평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난이도 또한 그에 준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과하게 어려운 문제는 배제하였으나, 개방형 문제의 경우 2024 수능에서 다시금 출제된 바 있고,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는 개방형 문제를 자주 출제하기에 교육청 경향을 반영하여 몇 문제 넣어 보았습니다. 선거구 문제는 수능 경향을 반영하여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쉽게 출제했습니다 :)

해 설

0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⑤

★ 이 문제 틀리시면 큰일납니다 ..
 같은 집단현상설(넓은 의미의 정치), 을은 국가현상설(좁은 의미의 정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①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만의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둘의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③ 이익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집단 현상설, 즉 갑이겠죠! 반대로 되었네요. ④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집단현상설, 갑이겠습니다. ⑤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의 해결을 정치의 기능으로 보는 것은 갑, 을의 공통점이겠지요 !

02 법치주의의 유형 ④

★ 가끔 교사가 웨이크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시길 !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A와 B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 따라서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었습니다. ① 갑이 붉은 유형,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 제정의 합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을이 붉은 유형, 즉 형식적 법치주의는 정의를 그닥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네요. ③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바뀌었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법치주의는 결국 통치자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즉, 적절한 말이 되겠네요 ! ⑤ 역사적으로는 형식적 → 실질적, 즉 B → A가 됩니다. 부적절합니다.

03 헌법의 기본 원리 ③

★ 첫번째 조항만 보고 통일!! 이랬으면 반성하세요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 이라 했기 때문에 평화 통일 지향과 자유 민주주의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항은 자유 민주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공통적으로 반영된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였습니다. ①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② 통일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③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⑤ 국제 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04 기본권 ④

★ 의외로 자백의 증명력이 자유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수특에 나와 있습니다 조심조심 !
 자백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근거는 자유권입니다. 따라서 C는 자유권이 되겠고, A, B는 평등권과 청구권 중 하나겠어요!
 ① 복수 정당제는 대표적인 자유권을 반영한 사례이죠. ② 평등권은 소극적 권리,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입니다. A와 B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네요 ! ③ A가 청구권이라면, B는 평등권이 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맞네요 ! ④ 청원권은 곧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B가 청구권이고, A가 평등권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처럼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도 평등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그렇죠! 법률에 의해 제한하고자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

05 정부 형태의 추론 ⑤

★ 외웁시다. "과반 정당이 있을 때, 과반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르다면 이는 무조건 대통령제이다."
 위의 규칙에 따라, T대와 T+1대는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1회 정부 형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T+2대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①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죠. ②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③ B당과 D당이 연립하면 41%로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불가능해요, ④ T대나 T+1대나 모두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대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의 임기가 보장되지는 않겠죠 !

06 지방 자치 ④

★ 지방 자치,, 무시하지 마시길
 ① 지방 의회는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모두 존재합니다. ② 결국 지방 자치는 정부의 축소판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 단체의 장도 지방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치 단체의 장은 명령이 아닌 규칙을 제정합니다. 명령은 대통령 등이 발표합니다. ③ 주민 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일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단체 자치가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합니다. ④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은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종류이죠. ⑤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죠. 조례 제

·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표현해야 하며,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07 형사 절차의 이해 ① (ㄱ)

★ 항상,, 형사 절차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에 집중하기 !
① 수사는 고소·고발, 현행범의 체포 등으로 시작됩니다. ㉠ 영장은 판사로부터 발부받습니다. ㉡ 수사 종결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하지 못합니다.

08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③

★ 감사 위원 .. 이거는 수특에 항상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 자료를 보아 '저는 대통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②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국무 회의에 소속됩니다. 결국 장관들이 국무위원입니다. ③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 위원은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④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⑤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해요~ 이지 실제로 해임되는 것도 아니며,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 소추를 해야 B, 즉 헌법 재판소에서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09 헌법 소원 ② (ㄱ, ㄷ)

★ 헌법 소원은 요즘 텍스트가 길어지는 추세이니.. 잘 읽으시다 !
갑이 X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어쩌구 저쩌구 결론은 세금 더 냈으니까 돌려달라! 했는데 Y구청장이 썩까서 소송 걸었다가 현재에도 걸려고 하는 상황인데, 법원이 또 안 돼 돌아가 ~ 해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여기서도 또 까였네요. 참으로 비극한 인생입니다. ①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1심 법원이겠조 ! B 또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니 헌법재판소일 것입니다. ㉠ 밑줄 잘 보세요.. 밑줄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만 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신청'한 것이니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한 것은 맞아요 ! ㉡ 헌법 소원 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재가 돌려줄 필요 없어 ~ 라고 했으니 굳?이 !!

10 노동자의 권리 구제 ③

★ 결국 누가,, 누구에게 진정·소송을 걸었는지를 체크합니다 !
갑은 현재 해고 무효 소송을 건 상황이고, Y 회사는 지금 중노위장을 대상을 소송하는 것을 보니 행정 소송을 제기했네요 ! ① 해고 무효 소송, 즉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X 회사가 피고일 것이고, 해고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갑은 복직할 수 있습니다. ② 그렇죠! 부당 해고 구제는 무효 소송과 더불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Y 회사가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Y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니, 중노위는 을의 편을 들어주었겠네요! 따라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겠습니다. ④ 갑이 제기한

소송은 민사 소송, Y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입니다. 모두 3심제가 적용됩니다. ⑤ A 법원은 갑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 판단하였고, B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Y 회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따라서 부당 해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판단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 민법의 기본 원리 ③

★ 이것도 기본이죠!
(가)는 계약 공정의 원칙, (나)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반영되어있네요. ①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 맞습니다. ② (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 맞습니다. ③ 그럴 리가요 !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특수한 경우에 수정된 민법의 기본 원칙이 반영됩니다. ④, ⑤ 너무 맞는 말.

12 범죄의 성립 요건 ①

★ 구성 요건 해당성이 사람 닮기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① 맹장염 수술을 하려면 어쨌든 배를 갈라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상해죄예요. 하지만 이거는 직업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니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② 의도는 못됐지만 결국 절도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맞습니다. ④ 갑은 형사 미성년자네요.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됩니다. ⑤ 말만 번지르르하지 이거는 절도죠. 따라서 D에 해당합니다.

13 정치 참여 집단 ③

★ 요즘 ~로 A, B, C를 구분할 수 있다와 같은 문형을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아 두시길 !
'집단의 특수 이익을 우선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보면, 시민 단체 (X), 이익 집단 (O), 정당 (X)겠네요. 따라서 A는 이익 집단이 됩니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입니다. 따라서 B는 정당, 자연스럽게 C는 시민 단체가 되겠네요. ① 그렇죠. 이익 집단은 사익을 추구합니다. ② 정당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XX법 발의,,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소속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뜻이에요. 해탈리시면 안됩니다. 정당 명의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③ 그렇죠! 너무 맞는 말. ④, ⑤ A~C 모두 정치 사회화·대의 정치 한계 보완 기능을 합니다.

14 미성년자의 계약 ① (ㄱ, ㄴ)

★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하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알아 두세요 !
① 용돈 사용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의 속임수로 인해 상대방이 믿게 된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은 배제됩니다. ㉡ 부모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로 확정 유효합니다. 즉, 확답 촉구 등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셈이죠. ㉢ 사기 등으로 인해 계약을 맺은

경우 취소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조심하세요 !

15 불법 행위 ③

★ 작년 수능특강에서 한 번 언급되었던 주제라서, 한 번 넣어 봤어요
책임의 제한이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라요 :)

우선 A가 C를 대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의 책임이 60%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A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① B는 소유자인데, 이미 C 선에서 컷이 났기 때문에 소유자는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② 증명을 하지 못했으니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③ C 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죠. B는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요 ④ 그렇죠. C가 증명을 했으면, B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⑤ 이거는 뭐,, 당연하죠! B나 C 때문에 발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

16 민법 - 가족 관계 ④

★ 인물관계도 생각하기 필수 !

갑과 을이 결혼하여 살고 있었고, 그 슬하에 X와 Y를 두고 있었네요. 근데 갑과 을은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을 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X를, 을은 Y를 양육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갑은 A와 재혼하고, X를 A가 일반 입양하였네요! 그리고 Z도 태어났군요! ①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X를 A가 입양한 것은 결국 X가 8세가 되기 전이죠. 어차피 미성년자라는 소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양자 · 일반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③ A는 X를 일반 입양하였기 때문에, X와 을의 친족 관계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④ 이미 갑과 A는 법률혼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지 절차는 전혀 필요가 없죠! ⑤ 을은 갑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X, Y, Z는 갑이 아빠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7 선거의 이해 ②

★ 개념형을 내면 잘 안 나온 선거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ㄱ) 따라서 ㉠~㉣ 중 '예'가 2개, '아니오'가 4개가 되겠습니다. (ㄴ) A가 기초 의회 의원 선거라면, 위엿것은 (X, O, X) 혹은 (X, X, O)가 됩니다. 아랫것은 (O, X, X)가 되겠죠. 결국 ㉠은 X로 고정, ㉡은 둘 중 어떤 것이 와도 X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합니다. (ㄷ) B가 대통령 선거라면, 위엿것이 (X, O, X)이고 아랫것이 (O, X, X) 혹은 (X, X, O)가 되겠죠. ㉢은 X로 고정되어 있고, ㉣ 또한 X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아니요라는 진술은 적절합니다. (ㄹ) ㉠, ㉡, ㉣가 같으려면, '예'는 2개이니 X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랫것이 결정됩니다. ㉤이 O이기에 자동적으로 A가 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되고, 그러면 위엿것이 (X, O, X)가 되어야 하네요. B가 대통령

선거, C가 국회 의원 선거가 됩니다. 국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합죠~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④

★ 생활과 윤리 기출에서 종종해 왔습니다 ~

(가)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의 관점이고, (나)는 현실주의의 관점입니다. ① 자유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② 자유주의는 세력 균형이 아닌 집단 안보를 통한 국제평화를 이야기합니다. ③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을 통해 영구적 평화가 아닌 전쟁의 예방이나 억지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④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 관계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국제법과 국제 연합 ④

★ 간단하죠..?

(ㄱ)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총회가 되겠습니다. (ㄴ) 결국 ㉠은 조약이기 때문에 (다자 조약)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적 절차를 거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과 같은 법률과 동일 효력을 지닙니다.

20 선거 분석 ③ (C당, D당)

★ 요즘 선거 진짜 쉽게 내니까 저도 진짜ㅁㅁㅁㅁㅁㅁㅁㅁ 쉽게 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과거 비례 대표 선거 방식을 말하고 있네요. 지역구 득표율을 바탕으로 비례 대표를 정했다는 말이네요.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해 봅시다. 개편 전은 100석을 지역구 득표율로 계산하고, 개편 후는 150석을 비례 대표 득표율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1> 계산 결과

	개편 전	개편 후	증감
A당	40	48	+8
B당	30	42	+12
C당	15	33	+18
D당	10	15	+5
E당	5	12	+7

그렇다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당은 C당이 되고, 가장 적게 증가한 정당은 D당이 되겠습니다. (C당, D당)을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1	④	2	⑤	3	⑤	4	④	5	③
6	②	7	③	8	②	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①	19	③	20	①

총 평

사회·문화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는 '개념'을 잘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개념과 말장난이 다소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표는 기출 변형으로, 별 어려움 없이 풀리도록 출제했습니다.

해 설

01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④

★ 항상 밑줄에 조심하세요 !

㉠은 자연 현상, ㉡~㉣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은 '발표'에 주의) ①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②~③ ㉡, ㉢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라 '달리', '비해'라는 말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④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⑤ 동일 조건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 현상인데, ㉠만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02 다양한 문화 양상 ⑤

★ 지역 문화는 웨이크로 한 번 넣어 봤는데,, 반문화와 마찬가지로 지역 문화 또한 하위 문화의 일종입니다 ~

A이며 B인 것도, A가 아니며 B인 것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A가 지역 문화, B가 하위 문화, C가 주류 문화가 되겠습니다. ① 방금 말했어용. ② 모든 A(지역)가 B(하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③ A~C 모두 사회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④ 하위 문화가 풍부 할수록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또한 증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문화도 하위 문화죠 ⑤ 하위문화는 곧 주류 문화를 바탕으로 상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C(주류) 또한 향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03 연구 윤리 ⑤ (ㄱ, ㄴ, ㄷ)

★ 뭐.. 설명이 그닥 필요 없죠?

(ㄱ) (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 연구 결과 발표 전이라도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ㄴ) 자료 분석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면 큰일나겠죠~ (ㄷ) 그렇죠? (가)에는 대상자와 관련한 말이 쓰여 있고, (나)에는 연구 과정과 관련된 말이 쓰여 있네요. 이거는 뭐.. 틀렸으면 큰일나는 거죠.

04 양적 연구의 탐구 과정 ④

★ 요즘은 양적 연구 문제가 굉장히 길어져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6평 대비 모의고사부터는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7

독립 변인 처치를 X에 하고, Y에 하지 않았으니 실험 집단은 집단 X, 통제 집단은 집단 Y가 되겠습니다. ① 모집단은 '학생'이고, 표본이 '○○중학교 3학년 재학생 100명'이 되는 것이겠죠! ② ㉠이 독립 변수인 것은 맞으나, ㉡은 ㉠이 아닌 '정서적 불안'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③ 앞에서 말했죠? 또 애초에 독립 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죠. ④ N3이 더 크다는 것은, 집단 Y 학생들이 더욱 불안하다는 뜻이죠. 일단 사후 검사는 ㅇㅋ. 근데 또 N1과 비교를 해 봐야죠. 근데 조건에서 N1과 N2, N3 간의 관계를 알려 주었으니, X는 감소, Y는 의미없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는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⑤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설 검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05 빈곤 ③ (ㄷ, ㄹ)

★ 절대적·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적' 수치로 판단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조심 !!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최저 생계비가 90만원이고, 9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a~g입니다. 중위 소득은 K의 소득이고, K의 소득은 170만 원이므로 중위 소득의 50%는 85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a~f입니다. (ㄱ)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ㄴ) 이거 계산하신 분 없죠..? 저도 계산기로 돌리니까 413 쯤 나오던데, 애초에 r~u 이쪽이 소득이 엄청난데 어떻게 평균이 170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그냥 수리적 감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ㄷ) A에 해당하는 가구는 a, b, c, d, e, f, g의 7가구입니다. (ㄹ) 상대적 빈곤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g이고, g의 소득은 89만 원입니다. 89*2=178이기 때문에, 중위 소득의 2배보다 큼니다. 따라서 중위 소득은 178보다 작으니 맞는 말입니다!

06 문화의 특성 ② (ㄱ, ㄹ)

★ 요즘은 문화의 특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또한 6평 대비에서는 힘 줘서 출제해 볼게요!)><

(ㄱ) ㉠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으로, 이는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바탕이 됩니다. (ㄴ) ㉡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맞으나,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기에 문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ㄷ) ㉢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총체성인데, 선지는 축적성을 말하고 있네요. (ㄹ) 그렇죠! 농기계라는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며 소에서 바뀌었고, 직업이 많이 생기면서 변화가 되고 있죠.

07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③

★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인데,, 요즘 계속 내니까,, 어쩌겠습니까,, 까리면 까야죠,, 후진짜해설쓰면서도진짜풀기싫게생겨서짜증나는데일단정리해보죠

나가이어나내가이어나(근데제가출제하긴함) 일일이 설명하긴 그러니
갑~병의 소개에 나타난 사회 집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 X 전자, 사내 운동 동호회, [환경 보호 단체], (+A회사, □□대)

을: X 전자, 환경 보호 단체

병: X 전자, 가족, □□대 대학원

병에서 '가족'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갑의 소개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X 전자, A 회사, □□대로 총 3개이고, 을의 소개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은 X 전자와 환경 보호 단체로 2개입니다. 적은 게 아니라 많죠! ② 을의 소개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는 환경 보호 단체 뿐이라 1개, 을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X 전자와 환경 보호 단체로 2개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가 공식 조직보다 적습니다. ③ 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은 X 전자, 가족, 대학원으로 3개이고, 갑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X 전자, 환경 보호 단체로 2개입니다. 따라서 사회 집단이 더 많기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④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대 밖에 없어요. 하지만, 갑은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속해 있지 않고, 그렇기에 내집단인지 판별도 불가능합니다. ⑤ 을과 병은 함께 X 전자에 속해 있습니다 ~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환경 보호 단체가 되겠네요! 진짜 더럽다 그죠..?

08 사회 변동 이론 ②

★ 본의아니게 2페이지에 박센 문제가 조금 많아졌네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순하게 냈으니까 풀 수 있어요 화이팅

우선 을에게 모든 정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을로 판별을 하여야 합니다. A가 진화론이 아니고, B가 순환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A가 순환론, B가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갑은 1번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맞아야 해요. 그러면 ㉠은 자연스레 아니요가 되고, ㉡은 예가 되겠습니다. ① 바뀌었죠 둘이? ② 각각의 문화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환론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③ 앞은 맞으나, 진화론은 단순 → 복잡을 이야기하죠 ④ (가)는 '예', 즉 맞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서구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 B죠. 개소리를 지켰었으니 탈락! ⑤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B니까 맞말인데 들어갈 수 없네요!

09 일탈 이론 ④

★ 이거 그림들 제가 일일이 박스 그려서 타이핑친 거예요 (자랑) 읽어 보면,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을은 낙인 이론, 병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①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네요! ②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 적절합니다. ③ 차별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니 적절합니다. ④ 을과 병의 일탈은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측면으로 보는 게 더 용이하겠죠. ⑤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는 없겠죠..? 뭐 넣을까 하다가 교과서 대충 속 보고 집어 넣은 선지입니당

10 관료제와 탈관료제 ⑤

★ 지면이 부족해서 짧게 짧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당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입니다. ① 그렇죠! 탈관료제는 이와 달리 능력에 따라 성과가 제공됩니다. ② 대표적인 관료제의 한계점이 인간 소외, 목적 전치 현상이죠. ③ 그렇죠! 탈관료제의 등장 배경 중 하나가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서가 있죠. ④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은 관료제가 더 높습니다. ⑤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 즉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체제는 관료제에서 나타납니다.

11 계층 구조의 분석 ② (ㄷ)

★ 꼭 100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림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0	2000
A국	상층	X	2Y
	중층	4X	Y
	하층	2X	4Y
B국	상층	3Z	W
	중층	6Z	4W
	하층	2Z	8W

꼭 100으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과 같이 절대수를 상정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인구'를 물을 때예요. (ㄱ) 1970년 B국의 하층 비율은 2/11이고, 2000년 A국의 상층 비율은 2/7입니다. 어 2Y 2Z 같네 ~ 하고 달려드시면 큰일납니다. (ㄴ) 전형적인 사문식 웨이크죠. 인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ㄷ) A국은 1970(다이아), 2000(모래시계), B국은 1970(다이아), 2000(피라미드)입니다. 결국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겠죠. 중산층 비율이 높으니까요!

12 문화 이해의 태도 ②

★ 무난~ 무난~

A는 자문화 중심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양에 기여할 수 있죠! ② 문화 제국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연관있는 말입니다! ③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이슬람권 국가의 명예 살인과 같은 보편 윤리를 거스르는 일도 허용하게 되어 버려, 보편 가치를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A, B는 크게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들은 우열을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⑤ 상대주의는 곧 우리 문화 싫어!!를 외치기 때문에, 자문화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3 사회 운동 ①

★ 사회 운동의 조건은 다수 + 체계 + 목적 3박자!

① ㉠은 개인의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 운동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은 장애인 급여 개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이지 않죠. ㉢은 현상 유지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합니다. ④ ㉠도 감독 경질이라는 목표는 있습니다. ⑤ 오히려 ㉡에 대한 설명이라 봐야죠.

14 문화 변동 ④

★ 왠케 사문은.. 길게 내는 걸 좋아할까요.. 저도 길게 만든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요약하자면, 효문제는 한화 정책 실시해서 한족의 문화로 선비족 문화를 없앴습니다. 이는 곧 직접 전파이고, 문화 동화가 나타났네요. 하지만 이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들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청나라의 경우 변발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직접 전파죠. 그리고 문화 동화가 나타났고, 이것은 반발도 있었으니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봐야겠네요. ① 북위·청나라 모두 직접 전파가 나타납니다. ② 북위·청나라 모두 외재적 변동을 겪었습니다. ③ 북위는 자발적 문화 접변, 청나라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되겠습니다. ④ 북위와 청나라 모두 문화 동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⑤ 청나라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북위는 피지배 집단이 한족인데, 그 집단에 맞춰 주겠다고 누가 거부하겠어요!

15 복지 제도 ② (ㄱ, ㄴ)

★ 요즘 가중 평균 문제가 안 나오기는 하던데, 교육청이니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입니다. <자료 2>를 해석해 보면, 먼저 인구비부터 구해야겠죠. 인구비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가중 평균의 원리부터 학습하고 오세요! (가)의 전체 평균으로부터의 A·B구의 거리를 보면, $10:5 = 2:1$ 입니다. 따라서 A구와 B구의 인구비는 $1:2$ 가 되겠습니다. (ㄱ)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사회 보험입니다. 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이죠. (ㄴ) 공공 부조는 우리가 배우는 복지 제도 3개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공공 부조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ㄷ) 수급자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때 A구의 인구를 100명, B구의 인구를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A구	B구	전체
(가)	45명	60명	105명
(나)	8명	34명	42명

(가)의 수급자는 A구보다 B구가 15명 많고, (나)의 전체 수급자는 42명, (가)의 B구 수급자는 60명이기에 뒷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 문장이 틀렸기에 부적절합니다.

16 정보 사회의 문제점 ④

★ 이거 챗GPT가 써줬어요.. 똑똑하네요 이놈

결국 읽어 보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④입니다. 진짜 해설이 필요가 없음. ②라고 하기에 정보 격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에서 '부각되어'라고 말했죠.

17 자료 수집 방법 ②

★ 실험법이 아닌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운운하는 건 웃기죠

① ①의 독립 변수는 주기적인 모임의 유무가 맞고, 이를 질문지에서 4주에 1번 이상 참여하는 모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했어요. ② 특정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는 것은 맞지만, 어떠한 처치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제·실험 집단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③ 갑이 첫 번째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연구법으로, 경제성이 가장 높아요. ④ 갑이 두 번째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⑤ 질문지법과 문헌 연구법 모두 양적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18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①

★ 2209의 비밀결사를 뛰어 넘을 문제는 언제쯤 나올까요?

팀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 명목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ㄱ), (ㄴ)가 사회 명목론과 관계가 있고, (ㄷ), (ㄹ)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 됩니다.

19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③

★ 이 문제 만드는데 계속 오류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후

① (가)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비판을 받는가라면, 이는 기능론만 O라고 답하겠죠. 따라서 A가 기능론이 됩니다. ② ①이 예라면 (㉠이 아니요라면) (나)는 아니요, 아니요, 예가 되는데,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 2개입니다. 즉 예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적절하지 않아요. ③ B가 갈등론이고, (다)에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B와 C의 답이 같기에 C가 기능론이 됩니다.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죠. ④ (다)가 상황 정의의 관련 내용이라면, 자동적으로 A가 상상론, (㉠)가 '예'가 됩니다. 그러나, (가)에 사회 불평등의 불가피성에 대해 논하면, 갈등론은 아니요, 기능론은 예라고 답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⑤ A와 B, C를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가로 구분한다면, A가 기능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B에 갈등론을 넣는다면 (나)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 저출생·고령화 문제 ① (ㄱ, ㄷ)

★ 기출에서 많이 본 향기가 나죠..? + 웨이크 주의!

자료 해석에 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총 인구는 나중에 생각하고, 노령화 지수를 통해 일단 '비'를 구해 봅시다. 노령화 지수가 50이라는 것은 노/유 = 1/2라는 소리고, 112.5라는 것은 9/8이라는 소리죠. 이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어 봅시다.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A	8B
부양 인구		
노인 인구	A	9B

여기서 결국, $2A = 25$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100으로 맞추기 위해선 $8A = 100$ 이니까, 부양 인구는 5A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을 볼까요? $9B=45$ 라는 소리니까, $B=5$ 이니, $20B=100$ 이겠죠. 따라서 부양 인구는 3B가 되겠습니다. 이제 표를 다 채울 수가 있네요. 이 표를 바탕으로 계산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A	8B
부양 인구	5A	3B
노인 인구	A	9B
총인구	100	140

2000년 총인구를 100으로 잡으면, 2020년은 140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준다면?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5	56
부양 인구	62.5	21
노인 인구	12.5	63
총인구	100	140

이제 다 해결되었네요 ~

- (ㄱ) 2020년에 노인 인구 (63) = 부양 인구 (21) * 3 이죠. 굵잡
- (ㄴ) 25%에서 40%가 된 것이니까,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 (ㄷ) 유소년 인구는 31명 증가했고, 노년 인구는 50.5 증가했네요. 그렇다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 (ㄹ) 평가원에서 한 번 낚은 적 있는 선지예요. 부양비는 인구비를 말하는 것이지, '비용'은 아닙니다 !!

출 제 진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 강수영 (연세대학교 철학과)
정치와 법·사회·문화 : 김상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마 치 며

강수영 : 모의고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무료 배포는 대략 4회분 정도 구상중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지로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unkietic으로 DM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상원 :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이 풀리고 있는데, 감기 환자도 속출한다고 합니다. 수험생에게 제일은 건강입니다. 몸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혹은 큐브로 질문주세요 ! 인스타그램 : lazylectuer_one